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

민주공월



2024. 겨울호

175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 ———

민주공원

2024년 겨울호 통권 175호

발행처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발행인 이행봉 | 편집인 이동일
발행일 2024년 12월 27일 | 간별 계간 | 등록일 2005년 4월 12일 | 등록번호 부산증,바00013
표지 제호 신영복 | 편집장 김예선 편집위원 박지원 유한별 정유주(내부) 김보영 김현지 이주원 이지혜(외부)
디자인 중간 051-466-8994 |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공원길 19 (우 48901)
전화 051-790-7400 전송 051-790-7410 누리집 www.demopark.or.kr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SNS로 빠르게 소식을 만나보세요!

- 민주공원 페이스북
facebook.com/Minjugongwon
- 민주공원 인스타그램
@democracypark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페이스북
facebook.com/busanminju
- 민주공원 유튜브 채널
youtube.com/민주공원



떠내면서

차갑지만 맑은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에 2024년 마지막 발행호인 겨울호를 펴냅니다. 이번 겨울의 시작은 소란스러웠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시끄러웠습니다. 아님 밤중에 울린 비상계엄령 선포 재난문자에 모든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혹자는 이번 계엄령을 '123456'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2월 3일,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령이 6시간 만에 끝

났다고요. 그 4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푹푹히 기억합니다.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0년 5·18민주화운동은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비상계엄 상황에 반발하며 주권자로서 주권을 되찾고자 일어난 민주항쟁이었습니다. '햇불에서 응원봉까지', 동학농민혁명과 항일독립운동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우리의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햇불에서 촛불을 거쳐 응원봉까지 세대를 걸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2024년 민주공원에서 진행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민주공원 개관 25주년 기념으로 진행한 이야기·사진 공모전의 내용을 한데 모아 보여드립니다. 민주주의의 불꽃, 부산의 민주열사를 기억하는 민주열사 명패달기 프로젝트와, 현 소식지의 전신인 민주부산에 게재된 과거 글과 사진을 통해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민주공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되짚어 봅니다. 표지 민주공원 제호 위에는 언제나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여는'이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민주부산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겠습니다. 🧑‍🎨



▲ 이철수_동터오는 새벽_목판채색_1987

목 차

04

민주공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는 민주주의

민주공원 자원활동가가 말합니다! 민주공원과 함께한 2024년

거리에서 만나는 민주주의, 교실에서 배우는 민주시민교육

민주공원의 이웃을 만나다 ❶ 부산의 역사를 품고 있는 부산 중앙도서관

같은 듯 다른 세계 속 언덕, 마을 그리고 길 _박선정

20

회원과 함께

민주공원과 함께한 추억의 사진·이야기

민주열사 명패달기 프로젝트

부산시민이 지켜내온 민주부산

32

더: 나은

2024 부산의 인권을 기억하다!

실패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부산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현실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_이성한

엄마, 아빠가 너희들의 한을 풀어줄게 _김예선

41

민주사랑방

민주사랑방

42

민주알림방

민주알림방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현장체험 - 민주항쟁기념관 상설전시 해설, 민주공원 스토리투어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민주공원에서는 매년 <민주항쟁기념관 상설전시 해설>과 <민주공원 스토리투어>를 운영합니다. 올해도 부산관광공사에서 오신 문화관광해설사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셨습니다. 민주공원 내 위치한 민주항쟁기념관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한눈에 배울 수 있는 공간이며, 그중 상설전시 해설은 일 4회 운영되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민주공원 스토리투어>는 민주공원의 다양한 공간을 둘러보는 역사문화탐방으로, 해설사와 함께 산책하듯 편하게 민주주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입니다. 민주공원에는 추모의 공간인 넋기림마당,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바깥놀이마당, 부산의 전경을 볼 수 있는 바람마당 등의 다양한 공간을 많은 분들이 직접 보시며 민주주의에 대해 친숙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태생활민주주의 체험활동 – 민주공원 ‘봄·가을’ 숲체험

민주공원 생태생활민주주의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올해도 날씨 좋은 봄(4~6월), 가을(9~11월)에 진행되었습니다. 시니어숲해설사와 함께 민주공원과 인근 숲을 둘러보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생태민주주의의 가치를 많은 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었습니다.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계절별로 다양한 나무와 꽃 이야기를 듣고, 숲속을 거닐면서 각종 생태체험을 하였는데요. 또한 민주공원이 그려진 계절별 스티커페이퍼를 통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은 모든 게 조화를 이룰 때 완성된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민주공원 숲체험은 봄·가을 계절에, 상·하반기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봅니다. 🐼





민주공원 자원활동가가 말합니다!

민주공원과 함께 한 2024년

민 **시현** (중학생, 2024 우수 자원활동가)
좋은 사람들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하며 친해질 기회가 생겨 정말 행복했어요. 작년보다 더 화목하고 깊은 인연이 생긴 것 같아서 정말 좋았어요. 앞으로도 더 잘 알아갈 수 있다면 좋겠네요. 내년에도 꼭 하고 싶어요! 아쉬웠던 점은 시험 기간과 학원, 다양한 개인 일정이 겹쳐져 작년보다는 꾸준하게 참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은 이렇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다들 내년도 잘 지내길 바랄게요~ 1년 동안 많은 기회를 주시고, 친해질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친절하고 재미있게 이끌어가 주셔서 1년 내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조 **성호** (중학생, 2024 우수 자원활동가)
워크숍을 하면서 잘 모르던 사람과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고, 조별 활동을 하며 그냥 보고 지나갈 것들도 한 번 더 공부해보면서 모르는 역사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되게 재미있었다. 모든 사람과 친해지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런 활동을 하며 민주주의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여러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민지** (대학생, 2024 우수 자원활동가)
부산지역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장소를 배우고 탐방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를 공부하여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를 생각하게 되는 활동이었습니다. 더 많은 탐방 장소를 둘러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또, 방문하더라도 탐방 장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더 배우고 느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 한해 감사했습니다!! 잘 챙겨주신 덕에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임 **유진** (고등학생)
O.T, 워크숍, 수로식 등 여러 단체에 활동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성별이나 나이와 무관하게 모두가 하나 되어 활동할 기회는 인생에서 다시 없을 정도로 드물고 소중한



한 기회이기에 매일매일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던 사람들과 유대감을 쌓아가며 점점 가까워지는 걸 느껴서 좋았습니다. 소중한 추억을 품은 2024년이 되도록 해주셔서 관련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학업과 병행하다 보니 역사탐방에 자주 빠지게 되어 배우는 것이 줄어들었다고 느껴서 아쉬웠지만, 한정된 시간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며 느끼는 것이 많다면 충분히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모두 파이팅~



경이 줄어들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된 행사들이 있어 미안하고 아쉬웠습니다. 활동 외적으로도 더 많이 만나고 싶었으나 여건상 그럴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2023년과 2024년 모두 항상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매일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고 파이팅하세요. 내년에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 동근(대학생)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특히 우리 4조인 은진아와 성호, 시현아와 가인이를 만나게 되어 좋았습니다.

정 지영(대학생)

탐방활동 보고서 형식이 간단해져서 좋았고, 기획공연 자원 활동이 자주 있어 다른 조 친구들도 만날 기회가 많아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이 좋았습니다. 탐방활동 횟수가 조

2023년도에는 활동을 많이 즐기지 못했는데, 올해는 여유를 가지고 즐길 수 있어서 좋았고, 자원활동가로서 많은 활동에 참여해서 좋은 한 해가 되었습니다. 2023년에 비해서 활동 반

금 적었던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옛날의 저에게는 하나의 놀이터, 지금의 저에게는 민주시민의식의 발생지! 민주공원! 우리의 민주항쟁이 전세계에 알려지기까지 파이팅!



이 수연 (중학생)
 좀 더 다양한 사람과 생활을 함께하며 얻는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학교 시험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참여를 많이 하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ㅠㅠ (시험타파!!)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

박 영하 (대학생)
 평소 접할 일 없었던 청소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제 어릴 적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 활동이 더 많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프로그램인데, 인내를 갖고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좋은 어른이 되겠습니다.

이 가인 (고등학생)
 어린이날 행사와 워크숍, 지역탐방 등 좋은 경험과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고 많은 활동가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 참여율이 소홀해 다양한 행사들을 놓친 것이 아쉽다. 항상 친절하시고 상냥한 쌤들!! 많은 경험들과 추억 쌓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해요!!

이 서우 (중학생)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며 민주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원활동가로 함께한 모든 순간이 즐거웠습니다. 1년 동안 민주공원과 함께해서 영광이었고 정말 감사합니다.



조 우현 (고등학생)
 다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활동을 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 즐거웠다!! 시간이 안 맞아 참여하지 못한 활동이 많은 것 같아서 아쉽다. 다들 너무 멋지고 좋은 분들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행복 가득하세요, 파이팅!!

최 은진 (대학생)
 4조 친구들이 너무 귀엽게 말을 잘 들어주었고, 이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친구들과 일정 맞추기 힘들었던 것 ㅠㅠ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허 채영 (중학생)
 어린이날 자원 활동이 처음으로 해본 활동이었기 때문에 가장 좋았다. 수료증을 받지 못해서 아쉽다 ㅠㅠ 내년엔 꼭! 수료증도 받고, 우수활동가 상도 받을 것이다! 내년에도 다양한 활동 많이 해보고 싶어요!!

이 시연(중학생)

5월 5일 어린이날이 가장 좋았는데, 다같이 가장 오랜 시간 활동했고 가장 재밌었기 때문이다. 더 많이 활동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아쉽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설빈(중학생)

전시회나 탐방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뜻깊은 경험이었고 몰랐던 부분을 배우는 즐거움도 있었지만,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을 다시 확인하며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던 점이 특히 좋았습니다! 이번 탐방 장소와 작년 탐방 장소에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다음에는 탐방 장소가 더 다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 채연(대학생)

민주공원 자원활동가를 1년 동안 하면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역사에 대해 체험하고 배울 수 있었던 점이 좋았고, 워크숍이나 조 활동을 통한 공동체 활동이 재미있고 인상 깊은 것

같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참여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여러 활동을 다 참여해보지 못한 점이 아쉬운 것 같다.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 태훈(고등학생)

올해 민주공원 자원활동가 활동을 하며 가장 좋았던 점은 좋은 팀에 배치되어 친절한 팀원분들과 함께 우리 부산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탐방 다녀서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 원래 작년같았으면 더 많이 탐방 및 공식 행사 등에 참가하였을 테지만 올해는 학교 일정과 자원활동가 일정이 수상하리만큼 많이 겹쳐 탐방과 공식 행사에 많이 참여하지 못하였다. 특히나 마지막 워크숍을 참여하지 못한게 좀 많이 너무 엄청 몹시나 아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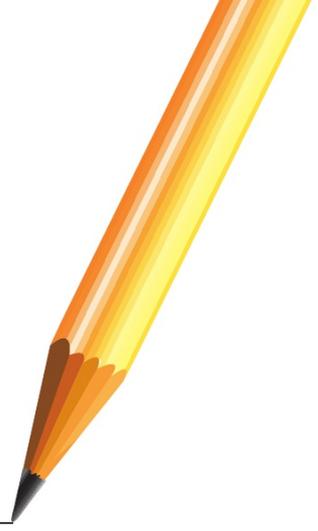
진 수(대학생)

청소년 자원활동가로 '5.18 레드페스타'에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광주 금남로에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노래를 목이 터지게 불렀던 것이 10년이 다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민주공원과 함께했던 기억을 항상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이후, 대학생 자원활동가로 민주공원에서 다시 활동하고 싶습니다. 유학, 코로나, 군 복무로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기억하고 반갑게 다시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공원과 함께 기자의 꿈을 꾸었고, 지금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가꾸어 나가는 기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거리에서 만나는 민주주의, 교실에서 배우는 민주시민교육



부산민주공원의 민주길해설사는 현장탐방 프로그램과 부산 민주역사길 스토리투어 프로그램으로 올 한 해 거리에서, 교실에서 민주시민들과 만나왔습니다. 민주길해설사는 민주시민교육의 공간과 방법을 확장하여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고 실행하면서 보다 재미있는 민주시민교육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4대 민주항쟁과 관련된 공간인 주민주길과 평화공존길을 걸으며 진행되는 현장탐방 프로그램과 민주길해설사가 교실로 찾아가 생생한 설명으로 부산 민주역사길을 안내하는 수업도 진행했습니다. 🇰🇷





민주공원의 이웃을 만나다 ④

부산의 역사를 품고 있는 부산 중앙도서관

민주공원과 나무 데크길로 이어져 있는 부산 중앙도서관은 1990년 개관하여 46만 여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입니다. 수정분관을 두고 있으며 2024년 부산교육역사관을 개관했습니다. 1998년 '향토' 분야 특성화도서관으로 선정되어 향토자료실을 개설하여 부산의 역사와 역사를 품은 귀중한 도서를 한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화 속 부산, 야구로 보는 부산 등 다양한 주제로 부산을 소개하는 북 큐레이션 전시도 도서관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어린이실을 리모델링하여 책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곳에는 어린이의 꿈과 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동화책, 그림책을 비롯하여 어린이 잡지, 어린이 신문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과 2025년에 개관할 민주공원 부속건물인 기록관 사이에 놓여 있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 다시 보는 영화 속 부산
 ▲ 중앙도서관 전경 ▲ 민주공원과 중앙도서관
 ▶ 음악으로 듣는 부산 도서전시
 ▶ 피란 수도 부산, 1023일의 기억
 ▶ 중앙도서관 어린이실 유아실

습니다. 부산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계승하는 민주항쟁기념관, 부산의 역사를 품고 있는 중앙도서관, 부산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사료를 보존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할 민주공원 부속건물 기록관이 연결되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같은 듯 다른 세계 속 언덕, 마을 그리고 길

박선정 | 인문학당 달리 소장

부산역이나 김해공항을 통해 부산을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부산항을 통해서 부산을 만난 사람의 눈에는 부산은 달리 보인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부산은 태평양과 만나는 한반도의 끝자락이다. 그리고 그 바다 위 산자락에는 매달리듯 빼곡히 자리 잡은 가옥들이 눈에 들어온다. 산이 바다로까지 이어진 지형에서, 그리고 그 높은 산마루까지도 집을 짓고 살아야만 했던 역사가 만나 이루어진 특이한 광경이다. 이것이 부산의 대표적인 정체성 중 하나를 상징하는 '산복도로'다. '민주공원과 산복도로' 기획 특집 마지막 회인 이번 호에서는 이탈리아의 나폴리를 중심으로 세계의 몇몇 도시들과 함께 우리 부산의 산복도로를 다시 들여다보고자 한다.



나폴리: 바닷가와 언덕의 공존

나폴리 항구 인근 지역은 나폴리만을 따라 우리에게 노래로 유명한 '산타루치아'를 비롯하여, 메르젤리나와 포르토 지역이 있다. 산타루치아는 역사적으로 어부와 상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아름다운 미항과 인근 섬으로의 여행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을 위한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이 즐지어 서 있다. 산타루치아에서 서쪽으로 걷다 보면, 요트 정박장과 함께 고급스러운 해변 지역에 도달하는데, 바다 전망의 고급 주택과 레스토랑이 눈에 들어온다. 이곳이 메르젤리나 지역이다. 반면, 크루즈 선박 터미널이 있는 포르토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거주지가 많고 상업적 느낌이 강하다. 바다를 등지고 도심으로 올라가면, 가옥 구조가 달라지고, 이탈리아 남부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에 걸맞게 도로가 좁아지고 가옥들이 빼곡히 들어선 지역으로 이어진다.

▲ 나폴리 항구에서 바라본 언덕 사진

◀ 나폴리 도시 언덕 위 산텔모 성 위에서 내려다 본 나폴리항과 도심

8세기경, 그리스인들이 새로운 정착지에 도시를 세우며 붙였던 이름인 '네아폴리스(Neapolis)', 즉 '신도시'라는 뜻과는 달리 이곳은 오래된 중세 도시의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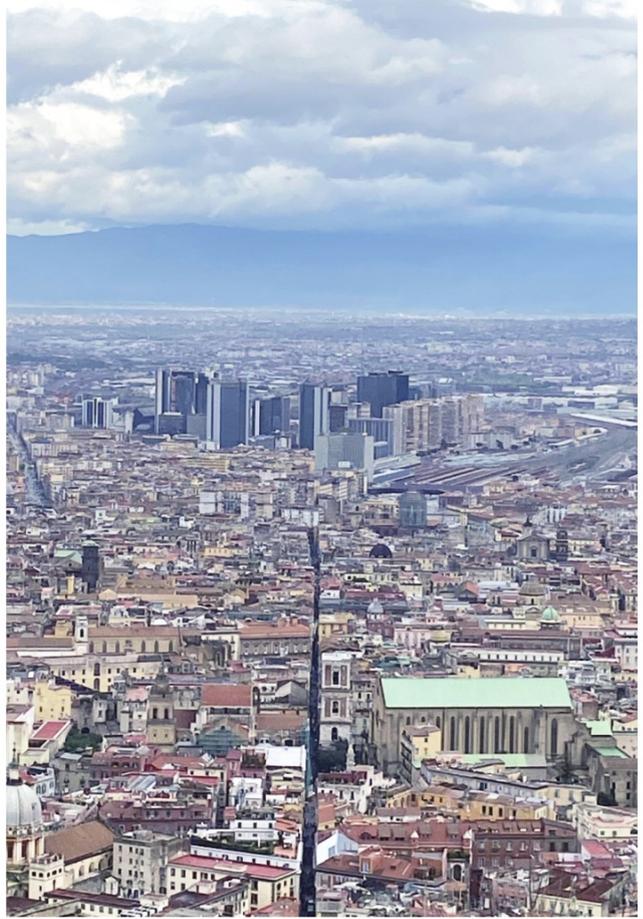
'나폴리를 가로지르는 길'이라는 뜻의 스파카나폴리(Spaccanapoli)는 도시를 칼로 자른 듯 둘로 나눈다. 중세 건축물과 가옥 구조가 그대로 보존된 이곳은 여전히 많은 현지인이 거주하며 활기를 띤다. 이곳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흐릿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경계도 불분명하다. 가난과 부유함의 정의조차 모호하며, 예술과 낙서의 차이도 의문을 자아낸다. 럼이 들어간 과자를 들고 다니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마실 수 있는 이곳은, 강단으로 악명 높은 지역이자 유서 깊은 가톨릭 교회와 수도원이 공존하는 나폴리의 심장부다.

스파카나폴리를 따라 서쪽 언덕으로 향하면, 톨레도 거리와 연결되는 지점에서 두 갈래로 길이 나타난다. 왼쪽은 부유층의 거주지인 보메로 지역으로, 산텔모 성과 카르투지아 수도원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나폴리항과 도시 전체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덕분에 관광객과 연인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반면, 오른쪽은 중산층 거주지인 아레나엘라 지역으로 이어진다. 이곳은 보메로에 비해 중산층들의 거주지역으로, 교통 여건이 불편한 외곽 지역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도 형성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언덕 지역은 평지와 비교하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의 공간이다.

대부분의 유럽 도시들에서 그러하듯이, 언덕은 적의 침략으로부터 방어가 쉽고 홍수나 해수 범람으로부터 안전하다. 초창기 나폴리의 정착민들 역시 바닷가 해안을 중심으로 거주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이후 바다를 통한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당하기 시작하면서 평지보다 언덕이 귀족들과 상류층을 위한 주거지와 요새로 발달했다.

이러한 이유로 보메로 지역은 지금도 고급 주택가와 고급 상점, 레스토랑이 즐비하며, 평지와 언덕을 잇는 비교적 잘 만들어진 차로와 함께 총 4개의 '푸니쿨라레'가 있다. 보메로에 트램이 있다면, 아레나엘라 지역에는 지하철 1호선이 있다. 이러한 교통수단은 좁은 도로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언덕 위 지역이 평지보다 부유층이나 중산층의 거주지라는 점이야말로 부산과의 확연한 차이점이다. 좁은 골목길에 가옥들이 다닥다닥 붙어 숨조차 쉬기 어려운 형태로 빼곡한 평지의 건물들과 달리, 언덕 위의 집들은 햇빛과 바람이 잘 들고 탁 트인 전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부유하다. 특히, 항구와 함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전성기를 맞던 19~20세기 동안 평지는 산업 현상으로서 소음과 공해, 그리고 인파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도시 평지를 피해 쾌적하고 조용하면서도 안전한 언덕 위 지역



▲ 나폴리 보메로 언덕 위에서 내려다 본 도심과 좌우를 나누는 듯한 길, 스파카나폴리



▲▲ 나폴리의 산복도로 언덕 위 동네를 잇는 오래되고 좁은 길
 ▲ 점점 낙후되고 불편한 동네로 전락하고 있는 나폴리의 언덕 동네 아레나엘라 지역

은 상류층에게 더욱 매력적인 공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곳 언덕 위가 모두 중산층이나 부유층의 거주지인 것은 아니다. 16~17세기경 산업이 발달하며 나폴리 인근 및 이탈리아 남부의 소도시에서 몰려든 인구가 증가했지만, 나폴리만으로는 그들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보메로 지역 중에서도 교통이 불편하거나 도보로 접근하기 힘든 외곽 지역에는 평지에 자리를 잡지 못한 이주민들의 주거지가 형성되었다. 이곳은 여전히 접근성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산텔모 성 인근이라 하더라도 도보 접근이 어렵거나 자동차 이동이 제한되는 지역 역시 점점 낙후되고 있다. 대부분의 오래된 건물들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점 역시 문제다. 나폴리 언덕 위 주거지의 집들이 고령화를 겪듯,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또한 고령화되고 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4~5층 건물,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오르막길, 상가 지역까지의 거리감 등이 이러한 불편함을 더욱 가중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산층 거주지인 아레나엘라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부유층 지역인 보메로에 비해 더 빠르게 노후되고 있는 현실이다.

부산의 산복도로를 따라 언덕을 오르는 것과 같은 속도와 느낌으로 이곳 아레나엘라 지역의 오르막길을 오르다 보면, 종종 낮은 빌라의 테라스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 노인들을 마주하게 된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노인들이 테라스에서나마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만나는 모습이다. 이러한 광경은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 중간쯤에 있는 집들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집 앞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가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이 힘들어 집 앞에 앉아 세상 구경을 하며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린다.

서양의 언덕

하지만 서양에서의 언덕 위 마을은 우리나라의 고지대 마을과는 정착의 과정에서부터 차이를 보인다. 서양의 대부분 구도시에서는 평지보다는 언덕 위에 도시를 세우거나, 상류층과 귀족층이 언덕 위에 자리 잡는 경향이 많다. 귀족의 성이 대체로 산속 높은 곳에 있는 것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방어에 유리했고, 평지에 사는 평민이나 하층민의 반란에도 대응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종교적으로도 신에게 더 가까운 신성한 곳이었다.

이러한 일례로 최근 우리에게도 관광지로 유명한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부다 지역과 체코의 프라하성

을 떠올릴 수 있다. 부다페스트는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 하나의 도시로 통합된 도시이지만, 이전에는 볼타바강을 중심으로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부다와 평지에 자리한 페스트로 나뉘어 있었다. 언덕 위 높은 곳은 방어적 요새로서 왕족과 귀족의 주거지였고, 상대적으로 낮은 평지는 산업의 중심지로 상인과 평민들이 주로 거주하였다. 이러한 지역적 특징은 프라하에서도 확인된다. 성비투스 성당과 프라하성이 위치한 흘라니 언덕과 그 아래에 자리한 말라 스트라나는, 중세 이후 근대까지 정치, 문화,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반면, 평지 지역인 올드타운은 상인 계층과 중산층의 거주지로서, 산업과 평민들의 삶의 현장이었다.

유럽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은 낮은 지대나 평지보다는 높은 지대를 선호했다. 이는 민족과 국가 간의 침략과 약탈이 일상이 되던 시기에 생겨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잉카 문명의 신비를 담고 있는 '마추픽추'도 그 일례다. 해발 2430m의 안데스 산맥 고지에 건설된 이 신비로운 도시는 그 자체로 자연이 방벽이 되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실제로 이곳은 스페인의 잉카 점령 동안에도 발견되지 않아, 잉카 문명의 마지막 유산으로 남아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지형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평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신분이 어울려 살았다. 우리 민족은 신분의 차이로 지역을 나누거나 경계를 삼기보다 한데 어울려 살아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외세의 침략이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신분의 구분 없이 함께 운명을 나누고자 했던 민족정신과 공동체 의식마저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부산의 산복도로와 원도심은 세계의 여러 언덕 위 도시나 마을과는 본질에서 다르다. 부산의 산복도로는 살기 위해 피난 온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고자 만들어 낸 겸손한 보금자리였다. 몸 하나 누일 공간만 있으면 산꼭대기라도 마다하지 않고 집을 짓고 길을 만들었다. 그렇게 형성된 곳이 부산의 산복도로와 원도심이다. 모두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시절의 간절함과 강인함이 담긴 상징이다.

하지만 이제 그 강인함마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잊히고 있다. 산복도로는 이제 낙후되고 불편한 공간으로 인식되며, 평지의 편리하고 세련된 새로운 동네들에 의해 점차 잊히고 있다. 귀족이나 상류층의 요새가 아니라, 조용하고 쾌적한 부촌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매일 오르내렸던 대한민국의 강인한 영혼이 담긴 산복도로와 원도심의 꺼져가는 불빛을 어떻게 재조명할 것인지는 이제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후손들의 몫이다. 

▼역체코의 프라하의 흘라니 언덕과 말라스트라나(작은 마을이라는 뜻)의 야경





박*희님 2024년 6월
 제37주년 6월 민주항쟁
 부산기념식 민주주의다
 시 세우기 장승 문화 한마
 당 모습입니다~



민주공원과 함께한 추억의 사진·이야기

민주공원 개관 25주년 맞이 시민·회원 이벤트 그 마지막 이야기 
 봄부터 겨울까지, 민주공원은 항상 부산시민 곁에 함께했습니다.
 민주공원에서의 따뜻한 추억을 여러분과 나누어봅니다.



공*원님 2024년 11월

암으로 투병하시고 은퇴 후 매일 아침마다
 반려견 순정과 민주공원으로 산책가시는
 저희 아버지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무섭고 멀게만 느껴졌던 아버
 지가 매일 민주공원 가서 산책하시면서 표정
 도 밝아지시고, 무엇보다 반려견 순정과 즐
 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민주공원이 저희 가족에게는 참 뜻깊은 장소
 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_^





노*지님 2024년 11월

강아지와 가을을 맞아 민주공원에 간단한 소풍을 나왔어요. 고양이들이 우리 든든이의 간식을 노리고 몰려 왔지만, 어림없죠! 든든이가 다 먹어치웠답니다~



♡ ◡ ▽
박*영님 2024년 10월
<진속아 사랑한다-1979부마>
님님 감동적이고 정말 정말
좋았어요~❤️



♡ ◡ ▽
박*영님 2024년 5월
<5.18민중항쟁 43주년 부산기념식> 서포터즈로 무대에 올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양*진님 2024년 11월

꿈디(강아지 이름) ^^
가족들과 다함께 산책 겸 운동하러 들린 민주공원! 떨어지는 낙엽에 하하호호 즐거운 운동을 했어요~ 너무 즐거운 하루였답니다♡



김*석님 2024년 11월

10년의 추억. 민주공원에 10년 동안 자주 산책을 갔어요. 어느덧 10살ㅎㅎ 리트리버 이름은 공주입니다. 민주공원에 오늘도 갔고 내일도 갑니다~





한*희님 2024년 11월

엄마, 막내 강아지(울무)와 5년만에 민주공원에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느라 부산에 자주 내려오지 못하는데 큰맘 먹고 연차 쓰고 가족들 보러 왔습니다 :) 따뜻한 가을을 맘껏 즐기고 힐링하고 갑니다.



박**님 2024년 11월

호두(큰강아지) & 마루(작은강아지)입니다. 호두가 부산에서 경기도 동생집으로 거주지를 옮긴 후 오랜만에 내려와서 자주 산책했던 공원으로 산책갔어요. 갈 때는 혼자였는데, 내려올 때 동생이랑 왔네요. 산책하니 얼굴이 미소가...예쁜 옷상~옷상~ 민주공원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장소입니다. ^^



신*경님 2024년 11월

귀염둥이 복호입니다~ 어머니 생신이라 서울에서 주말에 내려왔습니다. 생신 축하드리고 서울 올라가기 전 오랜만에 만난 강아지와 산책 겸 집 뒤 공원에 왔습니다. 가을이라 낙엽이 많은데 강아지도 낙엽이 좋은가봅니다.



시하의 봄 만류의 반인사예의

2024년 한 해 동안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민주공원에
따뜻한 마음을 보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민주공원이 이루고자 하는 가치는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항쟁, 6월민주항쟁으로 이어져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2024년 겨울,
바로 그 정신이 오늘로 연결되어 뿌리내리는 역사적 순간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며 함께 걷고 있습니다.

위대한 민주시민의 힘으로 지켜낸 소중한 귀한 일상.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새로운 다짐으로 힘차게 시작하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민주공원 -

민주열사 명패달기 프로젝트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부산의 민주화운동 기념을 통해 민주 열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했던 "기억해야 할 사람들 : 민주열사 명패달기 프로젝트" 캠페인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부산지역의 민주 열사를 기억하고, 나아가 열사 유족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이에 1987년 1월 자행된 국가폭력으로 인하여 사망한 「박종철 열사」 1987년 5월 독재 정권과 광주학살의 책임을 묻다가 산화한 「황보영국 열사」 1987년 6월 직사된 최루탄으로 인하여 좌천동 고가도로에서 떨어진 「이태춘 열사」 총 세분의 부산지역 민주열사를 기리는 <민주열사의 집> 명패를 제작하기 위한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불꽃을 기억하고자 하는 시민분들의 화답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약 10여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무려 1,895명의 시민이 모금에 참여하여 4백만원의 모금액을 달성하였으며,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민의 힘으로 <민주열사의 집> 명패를 제작하고 유가족에서 직접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한 몸을 다 바쳐 헌신한 민주열사를 잊지 않고 그 뜻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열렬한 응원과 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계기가 되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고, 부산지역의 시민들과 연결해나가기 위한 길에 항상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누가 그대를 죽였는가!"

<민주시민> 호외 1987년 5월 31일 발행

황보영국 열사의 분신 사실과 경찰의 은폐정황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하단에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있다.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소장 사료 -

<민주부산> 호외 1987년 6월 26일 발행

이태춘 열사의 최루탄 피격 사실과 함께 '용서할 수 없다. 최루탄정권 살인정권 군부독재 끝장내자!'라 쓰여있다.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소장 사료 -

부산시민이 지켜내온 민주광장, 서면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소장 사료 중, 1987년 6월민중항쟁 시기 부산 시민들이 지켜내온 민주주의의 광장 서면의 당시 모습들을 짚아보았습니다. 서면교차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과 대학생들의 결연한 표정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부산시민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1987년 6월 18일 최루탄추방의 날 서면 로터리

1만명이 넘는 시민과 학생이 집결했다. 부산 전역 곳곳에서 12만여명의 시민이 모여 "군부독재타도"와 "민주헌법쟁취"를 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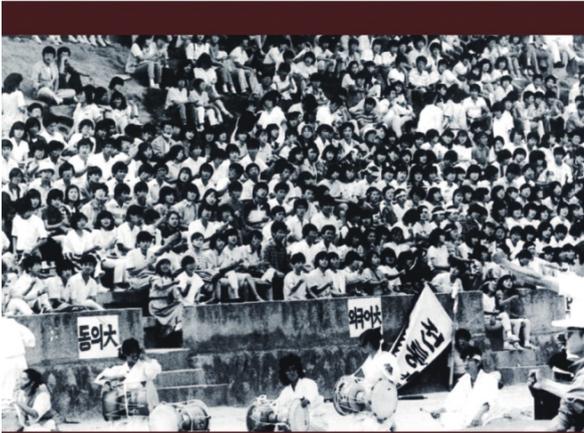


1987년 6월 20일 부산진시장 네거리



1987년 6월 20일 서면 로터리

1만 5천여 명이 넘는 시민이 연좌농성을 벌였다.
5천여 명은 이튿날 새벽까지 태화쇼핑 앞 도로를 점거하여 시위를 이어갔다.



1987년 6월 25일 부산대학교 넉넉한터

부산지역 총학생회 협의회 주최로
'민주헌법쟁취 결의대회'가 9개 대학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연합대동제를 마치고 6.10대회 등
가두시위와 관련해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부산시민 단결하여
군부독재 끝장내자

민주부산

창간호
1987년 6월 26일 발행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부산본부
643 - 8583 / 462 - 4626

— 서면에서 시청까지 4 백만 부산시민의 걸음걸이에, 민주화 의지를 —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는 5일 오후 1시 부산시청에서 유한 국민헌법쟁취위원을 전국적으로 동시 거행한다. 오후 7시, 2.7 박종철군 범국민추모대회, "3.3 민주화쟁취단", "5.10국 민단체" 등 군부독재정권에 대항한 범국민적 행사가 많은 것은 정권교체를 앞두고 열광과 비탄의 감정을 공유하는 민중을 대동하며 포 다시 맞이할 수 있다는 전국민적 의지의 표 현이다.

특히 5일 10일 이후 연일 계속된 시위속에 4.13 호헌의 "중대 결단"이 "중대 작전"이었을 이 드러나며, 전국민의 뜻이 단결, 호헌쟁취에 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땅의 민주화, 그 구 계적 실현경로로서의 민주헌법쟁취에 있음 이 명백해 졌다.

또한 민주헌법은 군부독재정권에 이방에서 영웅이 등장하지 않고서는 연어질 수 없을 운 전국민이 함께 노력해, 6.10 이후 전국적인 투 쟁속에서 특히 4백만 부산시민들은 정권교체이 급급한 정권집단이 보여주는 최후반으로 심명 을 당하고, "미안" "재미"고, 쓰러져 가면서도 어느 지의 시민보다 힘차게 싸워 나갔다.

이것은 바로 여섯 노동자를 강간한 "강간정 권", 총천이를 실었던 "실천정권", 천민공노할 살인극을 거짓 발표하여 국민을 속인 "사기정



권", 미국의 수인개발 요구에 적소미 못하는 "반민족적 대국정권"에 대한 천 부산시민의 의 모운 항이었다.

지금 우리는 독재의 총발과 최후반, 갖가지 서금과 언론통제속에서 숨죽여 노예로 살 것인 가? 아니면 군부독재정권을 몰아내고, 대동명을 내손으로 잡고, 언론, 출판의 자유, 노동자들의 책임과 보장과, 정치, 시위의 자유 등의 국민 민주적 계간제가 보장된 민주헌법을 쟁취하여,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인가 하는, 심로 중대한

결정경에서 있다. 6월 10일 이후의 결집된 4백만 부산시민의 힘을 6월 20일 평화대행진에서 또한 보여 주

자. 최후반과 총, 합동유지되는 정면은 강하고 힘 있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버림받은 가장 나약한 정권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서서히 공 령하는 천 군부독재정권에 평화대행진으로 인격을 가하여 천하는 이간다. 역사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

26일 우리 다 함께
이렇게 행동 합시다

● 행동요령 ●

- 모든 국민은 태극기 또는 손수건을 흔들며 서 참관 장소에 모입니다.
- 오후 5시 국기 하강식과 동시에 액극가를 적 성하며 천국의 교회와 사람은 막을하고, 모든차 량은 정적을 율합니다.
- 서면에서 시청까지 태극기, 손수건을 흔들며 행진합니다.
- 밤 9시 국민복복종의 표시로 10분간 소등함 습니다.

● 집결장소 ●

- 1. 집결장소 : 동래지역 : 양정로터리
- 북구, 진구지역 : 대명교광장
- 영도구, 서구, 사하구지역 : 보림교광장
- 남구, 해운대구지역 : 공천로터리
- 2. 집결장소 : 오후 7시 서면로터리 집결
- 3. 집결장소 : 시청

인물교체 안속는다
군부독재 타도하자!

창간사 민주부산을 발행하며

"최루탄과 총, 칼로 유지되는 정권은
강하고 힘있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버림받은 가장 나약한 정권"

-1987.06.26 민주부산 창간호-



1987년 6월 27일 범일성당

범일성당에서 장례미사를 마친후 태극기, 플랑카드, 이태준씨 영정 순으로 장례행렬을 배치하여 행진을 하고 있다



"선택은 오직 민주화를 바라는 민중의 힘에 달려있다."

87년 권력재편기에 군부를 몰아내고 민주정부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극우군부정권의
폭압하에 우리 조국의 운명을 절벽끝 벼랑의 위기에
처하게 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의 선택은 오직 민주화를 바라는 민중의 힘에 달려있다.

-1987.05.31 민주시민 제13호-

2024 부산의 인권을 기억하다!

〈부산인권정책포럼〉은 12월 10일, 76주년을 맞이하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여, '2024 부산의 인권 5대 뉴스' 선정을 위한 10개의 뉴스 후보 목록을 공개하고 부산지역 인권활동가들에게 선정투표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부산지역 인권단체 활동가 102명이 응답하였습니다. 2024 부산의 인권 5대 뉴스 선정 후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된 부산 인권 5대 뉴스의 내용과 발표 기자회견문을 지면에 펼쳐 내보입니다.

- ▶ 위기의 부산광역시인권센터, 흔들리는 인권행정체계
- ▶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불법합성 딥페이크 사건

더: 나은 꼭지에서는 국내외 민주주의 관련 현안을 진단하고 전망하며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민주공원, 부산지역 시민사회, 시민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특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미세한 혐오차별부터 사회를 분열시키고 연대와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우리 안의 혐오와 차별을 찾아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호 더: 나은 꼭지에서는 매년 부산인권정책포럼이 발표하는 부산 인권 5대 뉴스를 지면에 소개합니다. 5대 뉴스의 내용을 훑어보며 2024년 한 해 동안 부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민주주의 가치가 지켜지고 인권이 존중받는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무엇을 기억하고 실천해나가야 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_편집자 주

2024 부산 인권 5대 뉴스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4년 12월 9일(월) 14:00~14:30 장소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주최 주관 부산인권정책포럼



▲ 2024년 부산 인권 5대 뉴스 발표 기자회견
▶ 제19차 부산인권정책포럼 3인3색 부산의 인권을 말한다



- ▶ 캠퍼스에 들이닥친 경찰 수백명, 부경대 과잉 진압
- ▶ 부산지역 해고노동자들의 승리—민주일반노동조합부산지부 태종대지회 복직 및 대우버스 위장폐업·부당해고 행정소송 1심 승소
- ▶ 영화속·재생원의 악몽, 국제사회에 첫 증언
 -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국가폭력피해자(형제복지원, 재생원, 형제원, 덕성원)의 피해 공론화 활동
- ▶ 부산시 이주아동 보육비 지원 근거마련
- ▶ 부산시 인권위, 학교 밖 청소년 권리보장·지원 강화 권고
- ▶ 부산시 2025년 생활임금 5% 인상,(시급 1만1,917원) 광역지자체 중 최대 인상을
- ▶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판결, 부산지역 변호사 4년 노력
- ▶ 2024 임금체불액 사상 최대치 기록 예상, 부산임금체불 1만 3천여건 지난해보다 60% 증가

1. 위기의 부산광역시인권센터, 흔들리는 인권행정체계

2021년 11월 출범하여 3년의 운영을 마치고 2기로 순항해야 할 부산광역시인권센터가 부산시의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로 위기를 맞고 있다. 대전광역시인권센터가 폐쇄를 맞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반인권적 행보를 보인 당사자가 부산광역시 인권센터를 수탁받기 위한 로비 의혹 등으로 <부산인권정책포럼>에서 수탁공모 절차 및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함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부산시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부산시는 논란을 피하는 데만 급급하여 부산의 부문별 인권단체들이 협력하여 타 지자체로부터 부러움을 샀던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및 꾸준히 키워온 부산시 인권행정체계의 강화에 대한 의지와 정책이 우려된다.

2.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불법합성 딥페이크 사건

2024년 8월, 2020년부터 시작된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학생·교원 등 교육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 행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견되고 알려졌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므로 청소년의 접근이 쉽고, 매체의 특성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퍼지면서 무수한 가해자를 양산한다. 가해자는 범죄의 익명성과 직접적 성폭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작 유포 소지 시정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약하다.

반면 피해자는 자기 얼굴이 합성된 성착취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일상의 모든 인간관계가 공포로 변하고, 피해자의 도덕성과 행실을 문제 삼는 2차 피해는 극심하다. 피해를 보지 않아도 자신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

3. 캠퍼스에 들이닥친 경찰 수백 명, 부경대 과잉 진압

부경대학교 학생이 포함된 대학생 단체는 지난 7일 부경대 본관 총장실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대학 측은 정권 퇴진과 관련한 학내 투표를 불허하는 등 정당한 정치 활동과 의견 수렴을 방해했고, 이에 대해 총장 직무대행 면담을 요구했다.

사흘째인 9일 저녁 학생들은 면담 요구가 성사되지 않자 농성을 해제하고 나가려는 상황에서 대학 관

계자들과 대치가 이루어졌다. 이에 학교 측은 경찰에 지원을 요청했고, 경찰 200여 명이 교내로 진입하여 학생 8명과 외부인으로 알려진 2명 등 10명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연행했다.

민변 부산지부는 “부경대는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학칙을 근거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학생들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침해하는 만행을 보였다”며 “의견의 다양성과 개방성, 기본적 인권이 존중돼야 하는 대학교에서 초헌법적이고 위법한 행위가 자행”되었다고 비판했다.

4. 부산지역 해고노동자들의 승리

- 민주일반노동조합부산지부 태종대지회 복지 및 대우버스 위장폐업 · 부당해고 행정소송 1심 승소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안전한 일터보장 등의 노동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작은 승리가 있었다.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태종대 ‘다누비 관광열차’를 운영하는 부산관광공사 하청업체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7월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행정법원도 9월 27일 (주)일대우버스의 위장폐업 및 272명 노동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복직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5. 영화속 · 재생원의 악몽, 국제사회에 첫 증언

-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국가폭력피해자 (형제복지원, 영화속 · 재생원, 덕성원)의 피해 공론화 활동

국내 집단수용시설에서 벌어진 강제 구금과 폭력 등 인권 유린에 대해 손석주대표(영화속 · 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가 7월 국제연합(UN)산하 고문방지위원회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증언하면서 국가를 향한 진상구명을 요구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하였다. 집단수용시설 피해자들의 끊임 없는 피해 공론화 활동을 통해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3차 피해자를 결정했다. 1, 2차 337명을 피해자 확인 후, 153명의 피해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한편, 영화속 · 재생원 · 덕성원(아동시설) 등에서 일어났던 상습폭력과 강제노역의 경우,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피해자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부산에서는 최초로(전국 3번째)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국가손해배상책임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2월 이루어졌으나, 정부와 부산시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판결 6건 중 4건은 국가와 부산시가 피고이고, 2건은 국가가 피고이다. 11월 2심 판결에서도 1심 판결과 같이 이루어졌다. 🇸🇰

2024 부산의 인권을 기억하다!

부산인권정책포럼 제19차 포럼

1. 2024 부산의 인권 5대 뉴스 발표 기자회견

12월 9일(월) 14:00~14:30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2. '3인 3색 부산의 인권을 말하다'

12월 9일(월) 14:40~16:20 /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

시 간	내 용
14:40~14:50 (10')	소개와 인사 사회 : 최진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정책실장) • 참석자 소개 • 여는 인사 : 정귀순 (부산인권정책포럼 운영위원장, (사)부산인권플랫폼 파랑 이사장) • 축하 인사 : 반선호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14:50~15:50 (60')	2024 3인 3색 부산의 인권을 말하다 진행 : 박종민 (부산광역시인권센터 센터장) • 박재우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 지회장) • 신미라 (성평등정책연구소 소장) • 왕해자·이하빈·부경대TF 학생 · 김승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표현의자유 수호TF 변호사)
15:50~16:10 (20')	질의응답 및 나눔
16:10~16:20 (10')	마무리 및 기념 촬영

함께 하는 이들 (가나다 순 / 30개 기관 및 단체)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동자모임 부산울산지부, 독산이주민의집, (사)문화복지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부산광역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부산광역시 인권위원회, 부산노동권익센터,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산노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산광역시장애인인권익용호기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인권상담센터, 부산인권포럼, (사)부산인권플랫폼 파랑, 부산지역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사)부산여성회, 사회복지연대, (사)성평등 워아,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이주민과함께, 이주외국인연구소, 이주민문화센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존엄을 위해 인권은 기억되어야 합니다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수많은 희생을 딛고 '인권'을 국제사회의 중요한 규범으로 전 세계에 선포한 지 76주년을 맞이하는 2024년 오늘은, 미얀마,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을 보며 진정한 평화와 인권을 향한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한 번 더 새깁니다. 더 불어 지난 12월 3일 밤의 계엄령 선포가 불과 3시간 만에 국회에서의 해지 결의가 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44년 만에 되살아난 명령을 통해 한국사회의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는 아직 취약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부산인권정책포럼>은 2019년 12월 발족하여 인권도시 부산의 정책적 토대구축을 위해 인권 현안에 밀착한 정책 발굴과 개선을 주제로 지난 3년간 꾸준히 포럼을 개최해왔습니다. 지난 3월, 제16차 포럼 '제3차 부산시 인권정책기본계획을 디자인하다'에서는 2019년부터 5년간 진행된 제2차 부산시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추진 현황 및 3차 기본계획의 방향과 담겨야 할 내용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고, 6월 17차 포럼에서는 민선 8기 박형준 시장의 인권공약을 중간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어 9월 18차 포럼에서는 2기 출범을 앞둔 부산광역시 인권센터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현재까지 진행 중인 민간수탁 공모절차 및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함에 대한 의견을 박형준 시장께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산인권정책포럼>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며, 2024년을 달구었던 부산의 주요 인권 이슈들을 짚어보고 2025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2024 부산의 5대 인권 뉴스는 부산지역 48개 인권단체에 의견을 물은 후, 선정 기준에 따라 10개의 뉴스를 1차로 선정하고, 다시 부산지역 인권활동가 100명에게 묻는 민주적 수렴과정을 거쳐 탄생했습니다. 전국의 많은 인권 뉴스들이 있음에도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인권 뉴스를 발표하는 일

은 지역의 인권현장을 기억하고, 이후 인권운동의 실천과제를 준비하기 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정한 5대 뉴스는 ①위기의 부산광역시인권센터, 흔들리는 인권행정체계 ②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불법합성 딥페이크 사건 ③캠퍼스에 들이닥친 경찰 수백 명, 부경대 과잉진압 ④부산지역 해고노동자들의 승리—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지부 태종대대회 복직 및 대우버스 위장폐업·부당해고 행정소송 1심 승소 ⑤영화속·재생원의 악몽, 국제사회에 첫 증언—집단수용시설에 대한 국가폭력피해자 (형제복지원, 영화속·재생원, 형제원, 덕성원)의 피해 공론화 활동입니다.

이번 5대 인권 뉴스의 첫 뉴스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크게 흔들리고 있는 인권행정체계가 부산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는 '위기의 부산광역시인권센터, 흔들리는 인권행정체계'가 선택되었습니다. 이어 청소년들의 학교현장에게까지 넓게 퍼져 널리 퍼지고 있는 불법 성범죄 사건, 독재정권에서나 봄 직한 대학생들의 정치적 의견에 대한 학교 및 경찰의 과잉 대응과 진압 뉴스와 함께 부당해고 맞선 부산지역 해고노동자들의 승리, 국가폭력피해자 영화속·재생원의 악몽을 UN 산하 고문방지위원회에 증언한 뜻깊은 뉴스도 선정되었습니다.

인권은 공기와도 같아 박탈되거나 억압될 때 비로소 그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이번 2024 부산의 5대 인권 뉴스 선정을 통해 부산시민들과 함께 한 해를 돌아보며 인권을 기억하는 기록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자리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이 인권의 시작입니다. 어떤 차별이나 배제 없는,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존엄을 위해 귀 기울이는 인권활동을 앞으로도 실천해나가겠습니다.

2024년 12월 9일 부산인권정책포럼

실패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부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현실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성한 | 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



부산의료원 정상화 요구

의료개혁 실패는 시민에게 고통만 가중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준비도 없이 잘못된 정책 기조로 시작한 의료개혁은 9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은 계속 위협받는 재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응급의료 체계 붕괴를 넘어 의료 대란이 장기화될 경우 2025년에는 상급병원 중환자실과 수술실까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과 같이 공공의료가 취약하고, 지역 의료를 책임져야 할 부산의료원조차 계속 적자 경



부산의료원 정상화 요구

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부산 시민들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방향이 불러온 구조적 위기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의료개혁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고자 합니다.

1. 공공의료의 붕괴: 부산의료원의 위기와 정부의 무책임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부산의 현실

공공의료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 건강권 보장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부산 지역은 공공병원의 병상 비율이 10% 미만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경제적 약자와 응급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부산의료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지역 공공医료를 지탱하는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정부의 지원 부족과 적자 경영으로 인해 심각한 운영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부산의료원의 적자 경영과 정부 및 지방정부의 방치

부산의료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정부와 부산시의 재정 지원 미비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병상가동률이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을 위한 필수·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간과하면서 민간의료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간병원 수익성 우선 의료개혁 정책기조는 저소득층 및 중증 환자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위협하면서 의료급여 정률제 계약까지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부산의료원 정상화 문제까지 겹쳐 시민의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체계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공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쓴 금액만 2조 원에 육박하면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재정에도 막대한 출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 응급의료 체계 붕괴: 부산 시민의 생명권 위협

응급의료체계 붕괴 직전의 심각한 현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적 시스템인 응급의료 체계는 의료대란에도 전혀 문제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변명과 달리 올여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추석연휴기간 동안 부산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응급의료 체계가 이미 붕괴 직전 상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응급의료는 국가 의료체계의 최전선이자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의료개혁은 전공의 사퇴로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환경은 의료진 이탈과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응급실 배후 진료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는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의료 대란의 장기화: 중환자실과 수술실 위기로 이어지면 의료체계 전체가 붕괴할 수도

중환자실과 수술실의 중요성

중환자실과 수술실은 병원의 핵심 기능으로, 중증 환자와 급성환자 치료를 책임지는 필수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나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중환자실과 수술실 운영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의료진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상황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환자실 병상 부족현상은 이미 부산의 주요 상급병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진 부족으로 수술 대기시간은 증가하면서 필수 수술조차 제때 받지 못하고 대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 3월까지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결하지 못하면 전국 주요 상급병원의 중환자실과 수술실이 붕괴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붕괴가 될 것이라고 많은 의료 전문가가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4.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 무능력과 국민 불신

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윤석열 정부는 의료진, 환자,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응급실 포화_연합뉴스



의료대란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진 병원_연합뉴스

의료정책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며, 국민과 의료진 모두로부터 외면받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했습니다.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는 민간 병원 중심의 의료정책은 의료서비스 상업화로 결국 사회적 약자와 지방의 의료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더 큰 불신을 자초하였습니다.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힘들게 만든 여·야·의·정협의회는 12월 2일 결국 무기한 중단을 선언하고 좌초되면서 시민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정치적 무능력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5. 정부의 방치와 부산시의 무관심에 의료대란 최전선에 있는 부산 시민의 요구

부산 시민은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 정책 실패로 인해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강력하게 제기합니다.

첫째, 공공의료 투자 확대입니다. 부산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부산의료원을 정상화하는 정부와 부산시의 재정지원 강화를 포함한 공공의료 체계를 지켜낼 수 있는 종합적,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2028년 개원 예정인 서부산의료원과 어린이 전담병원도 공공의료와 필수의료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진 처우 개선을 포함한 의대생 증원 문제에 대한 빠른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결단해야 합니다. 의료개혁이란 명분으로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고 잘못된 판단으로 야기된 의료대란이 내년까지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조속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응급의료 체계를 복원하고 중환자실 병상 확충과 의료진 충원 등 의료체계 정상화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부산 시민 고령화와 의료 수요를 고려한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정책을 통해서 의료,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실패는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계속 방치할 수만은 없습니다.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전환을 포함한 긴급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엄마, 아빠가 너희들의 한을 풀어줄게



김예선 | 민주공원 홍보 담당, 편집장

이태원참사 2주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에 김산하 엄마, 아빠와 이진우 아빠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부산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지만 2년 전 그날에는 서로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바로 부산에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이태원 사고 현장은 아예 가보지도 못했어요.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이태원참사로 떠난 아이들이 158명인데, 병원도 곳곳에 흩어져 있으니깐... 나는 부산에서 혼자인 줄 알았어요. 시신 인도해서 바로 내려왔으니 몰랐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정부에서는 무조건 빨리 장례 치르게 하고 유가족들 못 모이게 했어요. 행안부에서는 유가족들 연락처를 다 알고 있었는데도요.”

“분향소도 서울, 경기도에 있는 대학병원, 요양병원 장례식장 곳곳으로 분산시켜 놔버렸으니 더 서로를 몰랐죠.”

“분명히 다른 가족들도 있을 거다 하는 마음에 2주, 3주쯤 지나고 인터넷을 뒤지고 뒤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서 자포자기하고 있다가 민변을 알게 되고 다





른 유가족들을 만나게 됐어요.”

“ 처음 만났을 때는 전부 다 화가 나 있었어요. 화내는 소리를 듣고 있었죠. 근데 한 언니는 화도 안 내고 말도 없었어요. 3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욱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3개월 동안 혼이 빠져있었던 거예요...”

“ 떠난 아이가 돌아오지는 않죠. 먼저 가서 마음이 아프고 가슴 깊이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슬픔을 나누니까 변하는 게 있어요. 깊은 슬픔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 유가족끼리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면 힘이 조금씩 생겨요. 우리는 어디 커피숍에 가서 얘기하는 것도 눈치 보여요. 이태원참사 유가족이라는 게 알려지는 게 두렵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얘기하면 너무 편하고 좋아요.”

“ 유가협을 꾸리고 처음 1년 동안은 서로 만나면 맨날 울기만 했어요. 그래도 마음 놓고 울고 위로하고 다독이고 이야기하고 그러다보니 같이 웃기도 하더라고요. 자식 잃었다고 시름에 빠져 있고 어둡고 처져 있고 하다는 것도 편견이에요. 간 아이도 중요하지만 살아 있는 가족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되려면 정부에서 애초에 발생 원인과 사고 처리를 정확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유가족끼리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게 트라우마 치료의 시작이었을 건데 그것부터 막아놨잖아요. 아직도 유가협에 못 나오는 분들도 만나요. 참사 일어나고 한 1, 2개월 지나니까 트라우마 치료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필요한 건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났고 왜 그렇게 대처를 했는지 의문이 들고 그게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치료만 받으라는 거예요.”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덮으려고만 하고 트라우마 치료만이 답인 것처럼 몰고 갔죠. 그냥 조용히 있어라, 그렇게 사는 거다 그 말밖에 안 되죠.”

“국민의 행복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이렇게 큰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단 말 한마디 없다는 게... 국가에도 기간으로 5일 지정해놓고 정치인들끼리 조문하고 그후론 끝이었죠.”

“제일 큰 문제는 참사가 일어나기 4시간 전부터 경찰에 신고 접수가 되고 ‘압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도 경찰도 구청도 시도 정부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위험하다고 그렇게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태원은 용산구에서 지정한 관광특구예요. 헬로윈데이 축제를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골목상권도 많이 살고 하는데 어떻게 한 기관이라도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죠. 사고 예방 대책도 안 세우고, 애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갔는데...”



“살아 있는 우리도 고통이지만 그 고통으로 간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에요.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게 누구냐면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이예요. 은폐하고 변명하고 왜곡하고 그러지 말고.”

“그것 때문에 더 깊게 슬픈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진실을 말하고 너무 죄송하게 댔습니다 그 한 마디면 이렇게 깊게 슬프지도 않았을 것 같고, 슬퍼도 그 무게가 지금과 달랐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간 게 억울했는데 점점 나의 억울함도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어떤 참사든지 사실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지만 성수대교 붕괴도 삼풍백화점 붕괴도... 어떤 상황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시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따져보고, 법원이 명명백백히 판단도 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유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월호도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진상규명이 안 된 부분이 많잖아요. 오송참사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처벌받는 사람이 있나요?”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100%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억울하게 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도 풀리고 애들 억울함도 풀리지 않겠어요?”

“물이 옆질러졌는데 이 물이 왜 옆질러졌는지 제대로 밝혀야 다음 번에는 물을 옆지리지 않지 않겠어요? 진상규명이 그런 거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밝히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진상규명을 한들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나요? 그 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민주공원 24년 사업평가 및 25년 계획수립 워크숍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수탁기관인 민주공원, 부설기관인 민주주의사회연구소는 12월 9일과 10일 양일간 경주로 24년 사업평가 및 25년 계획수립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2024년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35년, 민주공원 25년,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자!'라는 기조 아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활성화와 대중화, 계승과 혁신으로 시민과 호흡하는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기록관 운영 준비와 민주시민교육 발전 기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내용과 형식 구현을 목표로 삼고 활동해왔습니다. 각 단

위별 평가를 하고 2025년도 활동 기조(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4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4차 정기이사회 및 송년회

12월 19일 YMCA대강당에서 2024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4차 정기이사회를 열었습니다. 2024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보고하고 활동 및 사업, 재정, 회원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심의를 통해 강용철 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간사를 재정이사로, 문민철 전국 민주화운동 동지회 이사, 부산 민주화운동 동지회 운영위원장을 추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2025년도 2월에 있을 정기총회를 준비하는 준비위원회구성안도 심의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식지 <민주공원>을 잘 보고 계신가요?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 더 잘했으면 하는 쓴소리, 응원의 한마디 가리지 않고 말씀해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소식지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미지 속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아래 URL 주소로 접속하시어 이야기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

<https://forms.gle/CWwfwDhyGc8ZCsr5>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문의 www.ohminju.or.kr | ☎ 051) 790-7477

당신이 민주주의입니다.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에 함께 걸어주세요.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민주화운동을 기념·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기념사업, 민주시민교육, 대중문화예술, 기획전시, 체험활동 사업에 쓰입니다. 후원회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후원회원 가입 >

- ◆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ohminju.or.kr)
- ◆ 민주공원 홈페이지(www.demopark.or.kr)

큐알(QR)코드 간편가입 ▶



· 전화 : 051-790-7473 (회원사업 담당)
· 이메일 : byeol90@demopark.or.kr

📄 특별한 기부, 특별한 혜택



행사, 교육활동
우선알림과 혜택



회원 간 교류활동
(역사기행, 체험프로그램 등)



이달의 민중미술 작품
문자 발송(월 1회)



소식지 무료 발송
(연 4회)



공연, 전시 관람
특별 할인 혜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2024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한해 동안 후원해주신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원님의 따뜻한 마음이 연말정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드립니다.

1. 나의 정보 확인

회원님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야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후원회원' →

나의 후원이야기 →

회원정보(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확인



<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의 경로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QR코드를 인식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해주세요.

2. 기부금 영수증 조회 및 출력 방법(2025년 1월 중순 이후 가능)

1

국세청(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그인 필요) 에서 기부금 영수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2

홈페이지

나의 후원이야기(로그인 필요) → 기부금 영수증 탭을 통해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3

후원상담 및 방문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하단의 문의 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

- 전화 : 051-790-7473
- 이메일 : byeol90@demopark.or.kr

“

산복도로와 원도심의 꺼져가는 불빛을
어떻게 재조명할 것인지는
이제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후손들의 몫이다.

”